함평 엑스포공원 물놀이장 인기에 지역상권 활황

파도·어린이 물놀이장 연일 북적
개장 한달 안돼 2만4822명 찾아
인근 음식점 배달 매출 3배 껑충

인기 피서지로 등극한 함평엑스포공원 물놀이장이 문을 연 한 달여 동안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보탬이 됐다.

10일 함평군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문을 연 함평읍 수호리 엑스포공원 물놀이장의 10일 기준 이용 인원이 2만4822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매주 월요일을 뺀 31일간 물놀이장 문을 연다.

함평군은 물놀이장 하루 최대 수용 인원이 3000명이지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용객을 하루 2000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입장료는 대인 9000원·소인 7000원으로, 지난해 요금과 동결했다.

함평엑스포공원 물놀이장은 1만㎡ 부지에 다양한 놀이시설이 2400㎡ 면적에 펼쳐졌다.

782㎡ 규모 파도 물놀이장과 어린이 전용 물놀이장(234㎡) 등으로 조성됐다.

올여름 한 달간 문을 연 함평엑스포공원 물놀이장이 피서지로 인기를 끌면서 인근 음식점 등 지역상권의 호재가 됐다. 엑스포공원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방문객들. 〈함평군 제공〉

종합 안내소와 구명조끼·튜브 등 물품 대여소, 물건 보관함, 샤워장, 화장실, 의료반, 수유실 등 부대시설도 들어섰다.

온 가족이 함께 쉴 수 있는 그늘막과 차광막, 6인용 식탁 80개, 텐트장, 선풍기 26대도 갖췄다.

함평군 관광정책실 직원 23명과 안전관리요원·운영요원 62명 등이 물놀이장에서 일했다.

대형 그늘을 갖춘 6인용 식탁 80곳에서는 인근 식당 음식을 배달 주문할 수 있다.

가족 단위 피서객들이 지역 식당에서 음식을 시켜 먹은 덕분에 물놀이장 운영 기간 배달 매출이 2~3배가량 뛰기도 했다.

함평읍의 한 음식점 업주는 "물놀이장 개장 후 배달이 늘어 매출이 3배 정도 올랐다"며 "저녁에는 음식 재료를 다 써 주문을 못 받을 때도 있었다"고 말했다.

엑스포공원 물놀이장은 오는 13일까지 운영하고 휴식기에 들어간다.

김오선 함평군 관광정책실 시설운영팀장은 "엑스포공원 물놀이장은 매년 3만명 이상이 다녀가는 여름 인기 피서지로 덕분에 지역경제도 크게 활성화됐다"며 "물놀이장 운영을 마치는 날까지 안전사고 없이 관광객들이 즐겁고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장흥군 버섯종균분양센터
새로운 동충하초 배양 성공
배양기술 버섯 재배농가 이전

장흥군 버섯종균분양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차주훈 대표가 새로 개발한 동충하초를 선보이고 있다. 〈장흥군 제공〉

버섯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장흥군이 새로운 동충하초 배양에 성공했다.

장흥군 버섯종균분양센터는 최근 현미와 다양한 단백질원에 포자 현탁액을 접종해 배양한 새로운 동충하초 배양에 성공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성공은 장흥군 농업기술센터로부터 버섯종균분양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차주훈(37) 대표가 이끌었다. 그는 지난 2018년 청년사업가 양성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장흥군 농업기술센터와 버섯 산업 발전에 힘쓰고 있다.

버섯종균분양센터는 지난 2006년 설립돼 장흥 특화작목인 버섯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버섯종균을 생산·공급하고 있다.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등 버섯종균 생산을 비롯한 다양한 버섯을 직접 재배·생산하고 있다.

새롭게 생산한 동충하초는 기능성 지표물질인 코디세핀을 비롯한 여러 유효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동충하초는 항암, 항당뇨, 대사질환 개선, 항바이러스 등 다양한 약리 작용이 확인됐다. 생산량이 턱없이 부족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장흥군 측은 설명했다.

장흥군 버섯종균분양센터가 생산하는 동충하초는 장흥군 바이오식품산업단지에 위치한 데이앤바이오가 1차 가공하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제조회사로 납품되고 있다.

장흥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에 개발한 기술을 장흥군 버섯 재배 농가에 이전해 동충하초가 다양한 가공식품 원료로 활용되는 버섯 산업시장을 활성화할 것"이라며 "버섯 제품을 건강기능식품 제조회사에 납품하며 지역 농가 소득이 늘어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강진군 정부 공모 선정
국비 10억 등 25억 확보
벼 건조·저장시설 구축

강진군이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벼 건조·저장시설을 새로 구축한다.

강진군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4년 고품질쌀유통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10억1600만원을 포함한 사업비 25억4000만원을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사업은 강진군 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쌀종합처리장(RPC)에 있는 벼 건조·저장시설(DSC) 등 시설을 현대화하는 사업이다. 강진군은 내년부터 작천면 내기리 일원에 원료 투입구(30t) 1기, 건조기(30t) 3기, 저장탑(사일로·500t) 2기 등을 구축한다.

벼 건조·저장시설이 구축되면 수확기에 북산면(작천·병영·옴천) 산물벼 매입 물량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원료곡 변질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강진군 측은 기대하고 있다.

이번 공모사업에는 전국 14개 시·군, 23개 사업자가 신청했다.

서면, 현장, 발표 심사 등 3단계 평가를 거쳐 강진군과 보성군 등 전국 8개 시·군, 16개 사업자가 사업 대상자에 선정됐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강진군 쌀의 고품질화와 농가 소득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

장성경찰, 특별치안활동
안전한 장성 만들기 총력

장성경찰이 최근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 주민 불안감해소와 체감 안전도를 높이기 위한 특별치안활동에 나섰다. 〈사진〉

장성경찰은 지난 4일부터 기차역과 터미널, 대형마트, 유원지 등 다중 밀집지역에 경력을 전진 배치하고 자율방범대 등 유관단체와 협업해 합동 순찰을 하는 등 특별치안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병현 장성경찰서장은 장성역, 장성공용버스터미널, 팜스식자재마트 등을 현장점검하면서 "선제적 범죄 예방활동을 통해 민생치안 확보에 총력을 다해 '안전한 장성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자"라고 강조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월 임대료 1만원…화순 임대 아파트 2차 입주자 18일까지 모집

청년·신혼부부 26호씩

화순군이 '월 1만원 임대 아파트' 2차 입주자를 10일부터 오는 18일까지 모집한다.

올해 상반기 50명 모집에는 10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번에는 청년과 신혼부부 부문을 나눠 각각 26호씩 모집한다.

만원 임대 아파트는 화순군이 보증금을 대신 내주고 입주자는 월 1만원의 임차료와 관리비·공과금만 부담(예치금 88만원)하면 된다.

화순읍 만연리에 있는 20평형(전용면적 49.920㎡)인 부영아파트에서 2년 단위 최장 6년까지 살 수 있다.

신청일 기준 화순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 49세 이하인 청년과 신혼부부 세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라면 신청할 수 있다.

근로소득(사업소득) 증빙이 가능하고 해당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2차 사업 신청은 온라인 모집(hwasun.go.kr/youth)을 한다. 오는 18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 누리집에서는 간단한 검증을 통해 신청 자격 해당 여부를 알 수 있다. 온라인 신청 접수를 마감한 뒤에는 서류 심사 등을 거쳐 추첨 대상자를 선발하고, 입주자 추첨을 한다.

9월 중 선정을 마무리하고 10월 말부터 차례대로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온라인 신청은 신청자가 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서류심사 등의 여부가 결정된다"며 "신청 때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를 경우 대상자에서 탈락하므로 주의를 기울여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